조계종 비구니 복지체계 구축 나선다

전국비구니회, 주요사업 확정
회원 장례 · 돌봄지원사업 만전
비구니 디지털 인물사전 구축
5월 독립운동 비구니 뮤지컬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8차 정기총회. 회원스님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올해 전국비구니회원장(葬)과 돌봄지원 사업 등 비구니 복지 체계 구축에 진력한다. 일생을 승가 일원으로 살았지만 도제 및 연고가 없어 홀로 지내다가 마지막 회향을 여법하게 하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한 돌봄과 장례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6일 회관 3층 만불전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승인의 건 △조직 개편 승인의 건 △기타안건 등으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13대 전국비구니회 출범 4개월 동안 비구니회지 발간, 노스님 복지, 수행결사 추진 등 불교홍포와 전법실현을 위해 진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출범 당시 공약을 늘 상기하면서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 위상을 지키려 노력하고, 임기 동안 이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위한 행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구축에 진력한다. 첫 번째는 '전국비구니회원장'을 위한 준비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장례절차에서 49재까지의 장례복지 서비스로 도제 또는 연고가 없는 비구니스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데 사업목적이 있다. 임종 시 속가에 의존하지 않고 장례부터 49재를 여법하게 치름으로써 승가의 일원으로 살다 간 스님들의 마지막을 잘 회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회와 연결도 고려, 49재를 지회소속 사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홀로 사는 비구니스님 돌봄지원사업에도 힘쓴다. 홀로 절에 거주하는 스님들의 증가로 인한 승가공동체 해체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를 공유해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12대 집행부 사업인 비구니스님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사업의 확장으로, 19곳 지회장스님들과 연계해 정서돌봄지원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교 웰다잉 안내도 함께해 여법하게 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구니승가공동체 장례문화시스템인 전국비구니회원장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용 스님은 "지속적인 방문, 반찬나눔 등을 매개체로 건강돌봄과 마음나눔을 통해 전국비구니회가 든든한 울타리로 승가의 동반자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구니 연구와 활용에도 적극 나선다. 12대부터 4년간 이어온 한국비구니의 역사성과 정통성, 사회적 인지도 등을 총망라한 〈역사 속 한국비구니〉가 6월경 출간을 앞두고 있다. 또 디지털 한국비구니 인명사전 '비구니위키' 활용사업도 추진한다. 비구니위키는 '한국비구니수행담록'에 실린 329명의 비구니들을 디지털 인물사전으로 제작한 것이다. 역대 한국비구니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결망 구축으로 자료 연동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비구니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연구, 언론, 법문 문화 등에서 다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구니스님 3명을 조명하는 뮤지컬도 5월 선보일 계획이다.

종단협, 30개 회원종단 현황 파악 추진

2014년 이후 10년 만…자격조건 준수여부 파악

한국불교 30개 주요종단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현황 파악을 추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오는 12월까지 회원종단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 질병과 재난 발생 시 사회 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자료 활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정관에 명시한 회원의 자격조건 준수 여부와 회원종단의 의전서열 정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회원종단 현황 파악 주요 내용에는 종지종풍과 소의경전, 총무원 및 연간예산, 전체사찰 현황, 종헌종법, 출가자 및 신도교육 체계, 중앙종무기관 기구 현황, 산하시설 등이 포함된다. 현황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종단협 사무총장인 진호 스님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신혜 정사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이 참여한다. 특위는 오는 12월까지 현황 조사서 발송과 수령을 비롯해 종단 실사, 심의 회의 등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회원종단 연수교육은 5월 28~2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약 8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은 △일상 속 선명상 동행하기(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 △전법 포교 이야기(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AI와 불교(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가 구성안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 종단협은 지난 2월 21일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된 조동종 총본산 수락산 도선사의 복구를 위해 재난기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창녕 법성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관음종과 법상종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 "전법 화두 여전"

조계사 대중 3월 23일 기념법회
인도순례 동참자도 일부 함께해
해봉당 자승 대종사 유훈 되새겨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1주년 기념식에서 사부대중이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영전에 삼배를 올리는 모습.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지난해 3월 23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인도순례를 마치고 대중을 향해 던진 전법의 화두가 1년이 지나 다시 조계사에 울려 퍼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3월 23일 경내 대웅전에서 인도순례 회향 및 전법선언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당시 인도순례에 동참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부주지 탄보 스님, 중앙종회의원 삼조 스님, 혜장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1주년 기념식은 기획 당시 인도순례 동참 대중이 모여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다 같이 모이는 대신 각자의 수행처에서 전법의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사 기념식에는 인도순례 8조였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정충래 만해마을 원장, 이규민 전 국회의원, 김형규 법보신문 전 대표 등 우바새들이 참석했다.

사부대중은 이날 자승 대종사 영전에 추모 삼배를 올린 뒤 인도순례 전법 영상을 시청하며 1년 전 인도에서의 고행을 되새겼다. 일부 불자들은 자승 대종사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영상 시청에 이어 사부대중은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따라 108배를 올리며 '부처님 법 전하자'는 자승 대종사의 유훈을 다졌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전법 다짐에 나섰다. 이 회장은 "인도순례는 몰락해가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목숨을 건 43일간의 대장정이었다"며 "자승 대종사님께서 세워놓은 큰 가르침을 주지스님과 함께 하나씩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기념사에서 그간의 상월결사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인도순례가 한국불교 중흥과 전법의 원력을 굳건히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명 스님은 "인도순례는 지난해 펼쳐졌지만 실제로는 2020년부터 준비한 결과물이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부처님 원력과 가피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순례를 마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꽃샘추위를 이겨낸 뒤에야 꽃이 피듯이 인도순례 역시 결코 쉽지 않았다. 이번 생은 전법이라는 각오로 사부대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서울 불광사-하늘안과의원 MOU

3월 28일 업무협약…스님 · 신도 전문안과서비스 기대



서울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와 하늘안과의원(원장 김동수)이 승려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성화 스님)는 3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광사·하늘안과의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광사 소속 스님들은 병원에서 상담과 접수, 진단, 치료, 퇴원 절차에서 일반인과 구분된 서비스와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불광사 신도들 역시 하늘안과의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고령화된 불광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안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걱정이 컸는데 때마침 하늘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무척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동수 하늘안과의원 원장은 "2007년 개원 이래 17년 동안 전문적인 안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살려 본원을 방문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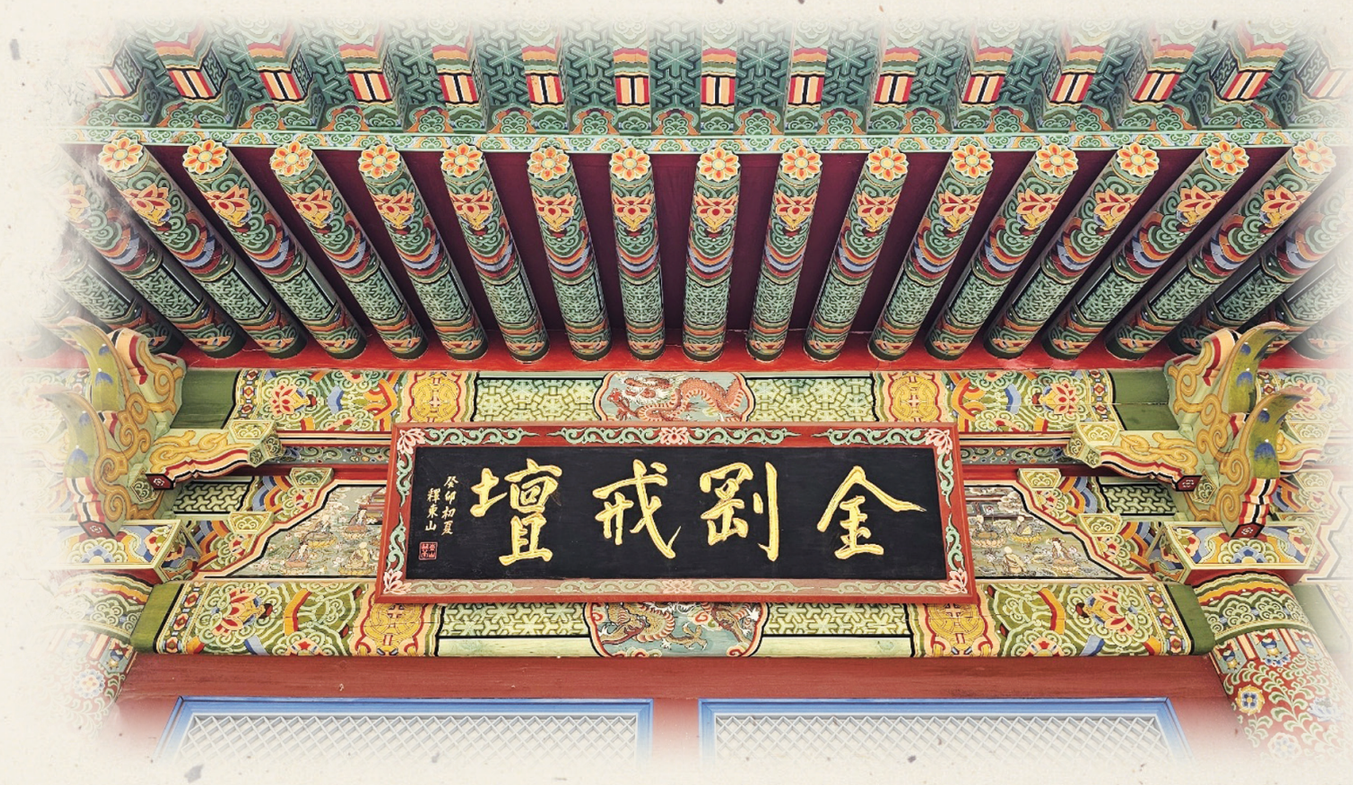
승려복지회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사찰과 지역전문병원의 승려복지 업무협약 체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승려복지와 지역포교 발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 제124회 보살계 수계산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래된 제124회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를 봉행합니다.
팔만사천 법문의 실천 요체인 범망경 보살계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에게 전하신 심지법문으로 불교의 수많은 수행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보살계를 받아서 생사해탈의 큰 인연 공덕으로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8(2024)년 4월 22일~23일
(음3월 14일~15일) 오전 10시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
접 수 처 | 범어사 원주실(051-508-3636)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전계대화상 범석 수불
주 지 산해 정오